

# 광주시교육청, 조직문화 혁신한다

### 기피부서격려 · 발탁승진제 도입 등 정책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통한 교육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원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교육행정기관 업무 방식을 개선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

‘교육행정기관 조직문화혁신 중점계획’은 5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즉시 실행 과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장기로 추진할 5대 과제는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방안 마련 ▲일반직 발탁 승진제도 도입 ▲업무 갈등 및 조정 기능 강화 ▲직원 업무 역량 강화 ▲효율적 공간 개선을 담고 있다.

9월부터 즉시 실행에 옮길 10대 과제는 ▲협업 중심 회의문화 개선 ▲업무집중시간제 운영 ▲관행적 의전 최소화 ▲허례 허식적 관행 근절 ▲유연근무제 및 가정의

날 활성화 ▲‘Oh, Happy Day’ 운영 개선 ▲출산·육아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매주 금요일 ‘청바지 입는 날’ 운영 ▲모바일 ‘교육수업 앱’ 개발 ▲보고서 표준 서식 제정을 꼽고 있다.

이번 혁신안은 2018년 상반기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광주교육청 조직건강성과 조직공정성 진단 연구 결과’와 20여 차례의 원탁토론회·정책간담회·설문조사 등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특히 원탁토론회 경우, 6급 이하 일반직 토론회를 시작으로 팀장급

토론회, 국과장·직속기관장급 토론회의 순으로 방향성 프로세스로 운영되었다. 설문조사 또한 높은 참여율과 진정성 있는 서술식 답변들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장희국 교육감은 “이번 혁신안으로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꼭 실현시키겠다”고 밝히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조직문화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실패로 끝난 사례가 많으며,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조인호 기자

## 전남교육청 월례조회 이색 공연 ‘눈길’

### 목포영화중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팀 ‘시나브로’ 연주



전남도교육청의 9월 월례조회가 이색공연으로 2학기를 시작하는

교직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목포 영화중학교 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팀 ‘시나브로’(지도교사 김기도)는 2일 오전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월례회의에서 공연을 펼쳤다.

시나브로 팀은 이날 회의에 앞서 20여 분 동안 ‘골목길’ ‘사랑비’ ‘손잡아줘요’ ‘사랑의 밧데리’ 등 대중가요 4곡을 연주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팀을 대표해 박하은 학생이 읽은 편지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올해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에 뽑혀 많은 지원을 받은 덕분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영화중 ‘시나브로’ 팀은 방과 후 틈틈이 기량을 갈고 닦아 해남군 주관 밴드 페스티벌, 남악 주민자치축제, 전남 예술인협회 주관 밴드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영화중 시나브로 학생들 공연 정말 멋졌다.”면서 “딱딱한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 활기와 기쁨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2학기를 시작하면서 “부서 간 협업을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눈앞에 쌓인 내 업무에만 매몰되면 중요한 점을 놓칠 수 있다.”면서 “실·과 별로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민선 37기의 교육시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함평공공도서관, ‘독서토론허당’ 운영



함평공공도서관이 8월 26일부터 4일간 월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함평독서토론허당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인재인 초

등학생들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상상력, 창의력, 소통력을 기를 수 있도록 토론 전문 강사를 파견해 운영했다.

수업방식은 전남도교육청 2019. 초등 독서토론 한마당(11월)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책을 읽고 강사가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토론 방식인 입문, 질의응답, 반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 사업은 함평공공도서관이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지정된 2017년 이후 3년째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 학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월야초등학교 학생은 “처음에는 내 생각과 의견을 정리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지만, 진행될수록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신나고, 공감받는 게 행복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야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

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한 토론수업이어서 더 자연스럽게 참여한 것 같아 좋았고,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자주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미현 관장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함평 독서토론허당은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면서 책과 가까워지고 독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마련했다.”면서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매곡초등학교, 수요자 맞춤형 문화공간조성 협의회 실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매곡초등학교에서 ‘수요자 맞춤형 문화공간조성사업’ 관련하여 ‘문화예술공간터-힐링마루’를 주제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이 8월 28일 1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공간조성사업’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수요자(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가 사업계획부터 실시 설계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획일적이고 학습위주의 학교 시설업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이 ‘힐링마루’를 주제로 교동안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준비한 자료로 토론행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동안의 학교시설사업의 주제에서 떨어져있는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시설사업에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는 의견들이 나왔으며 학습적인 공간구성보다 학생들이 위한 놀이나 휴식공간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휴식이나 놀이공간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이후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수요자 의견을 토대로 학교시설공간에 협의회를 3회 정도 실시하고 도출된 계획 안으로 2019년도 최종설계까지 완료후 2019년 겨울방학에 해당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완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자기표현력 향상 및 민주시민교육 캠프

###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교육지원청은 8월 30일부터 1박 2일간 보성청소년수련관에서 ‘2019 자기표현력 향상 민주시민교육 캠프’를 실시해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학교혁신을 실천하고 학생들간 연대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장흥지역 연합학생회 학생들의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꿈에 도전하는 동기 부여를 갖게 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마인드로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는 ▲말하기 및 쓰기 교육의 실제 ▲오즈나라의 선거이야기(초등)/토론!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요 ▲21C 창의적 리더십 ▲

별자리 천문관측 ▲화합의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 됐다.

‘말하기 및 쓰기 교육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한 신평호 교수는 쉽고 친숙한 역사와 일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에게 ‘말하기 및 쓰기’ 교육을 구체화 시켰고,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짝, 모둠과의 의미 있는 대화와 스토리텔링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내재된 긍정적 정서를 높였다.

특히, ‘오즈의 나라 선거이야기’와 ‘토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요!’를 통해 내 안에 있는 행복의 씨앗들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 발견해 자신감을 갖게 했으며, 토론 및 의견을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